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 선도지구로 육성

대명레저, 사업 추진...2022년까지 3천500억 투자 콘도 917실·호텔 90실·마리나·힐링 파크 등 조성

【대명레저산업이 3천500억원을 투자하는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진도군 의신면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일원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 특례 등과 함께 100억원 범위에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56만㎡ 규모로 조성되는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201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조성 계획을 승인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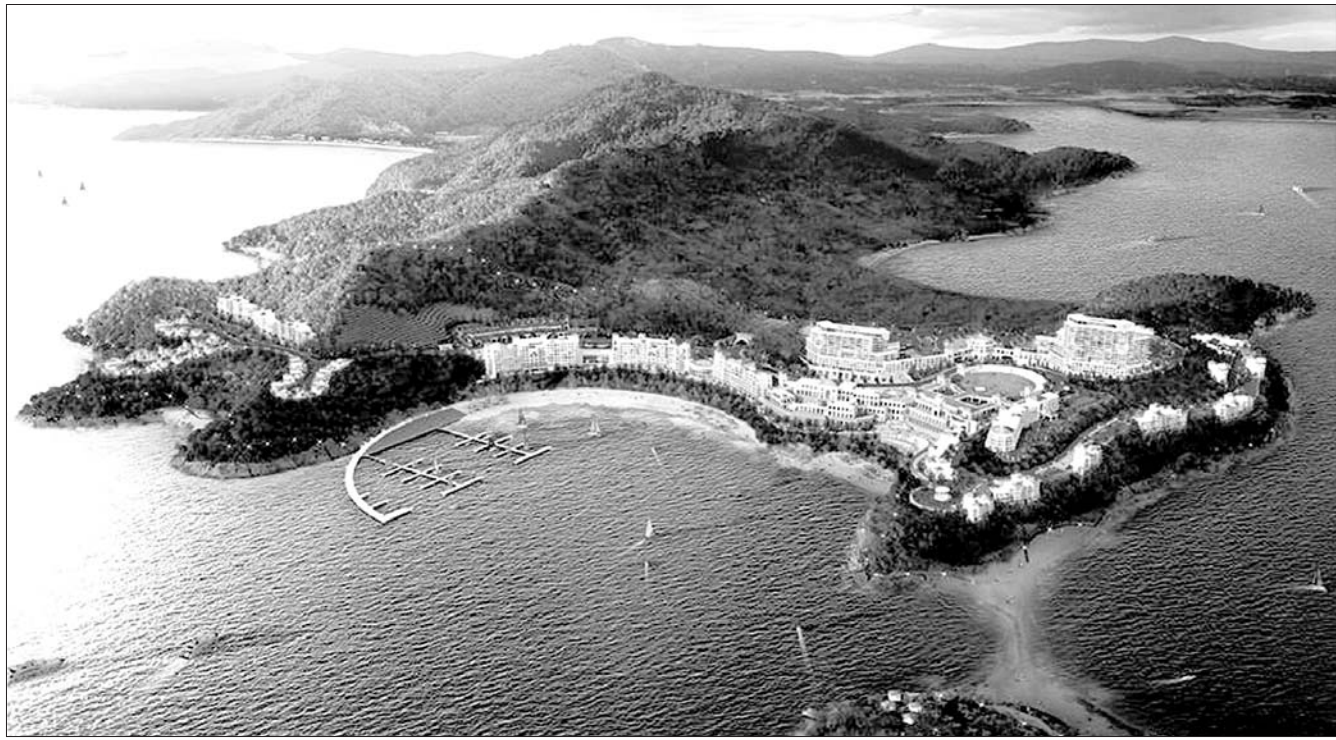
【대명레저산업이 2022년까지 약 3천500억 원을 투입해 콘도 917실·호텔 90실·마리나·힐링 파크 등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국비 등 95억 원을 투입해 국도 18호선과 연계되는 2개 노선 5.5km의 주변 도로를 정비한다.

또 해양권 조망이 가능한 '신비의 바닷길 스토리 로드' 3.2km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속문화예술공연장'과 '로컬푸드 판매장'도 신축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7천21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천51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 조감도.

도는 내다봤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2022년부터는 연간 9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차별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귀농·귀촌인 등 영암 농업인 대상 도기박물관 생활도예교실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은 농한기를 맞아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위한 기초도예 강좌인 생활도예교실을 신규·개설 운영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는 생활도예교실은 귀농·귀촌인과 같은 농업인 등 농한기에 체험이 가능한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초적인 도자 성형과 장식기법을 익히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2008년부터 10년간 생활도예교실을 운영해오면서 많은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농한기 생활도예교실을 통해 농번기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해 문화체험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민의 체험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생활도예교실은 1월부터 3월까지,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각각 1월, 2월, 8월에 모집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신안, 군민과의 대화 시작 읍·면 순회...소통행정 눈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4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2019년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신안의 새로운 도약과 1004대교가 개통되는 2019년 연초부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건의사항은 시급성, 주민수혜도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도읍에서 열린 첫 대화장에는 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들에게 군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또한, 지도읍 주요 사업장을 찾아 정주여건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득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며 농업인 규모화 및 밭작물 기계화,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작물 육성 등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농업육성의 장기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했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땅끝전망대서 보낸 엽서 받으셨나요?”

해남, 느린우체통 엽서 지난 3일 발송

해남 땅끝전망대 느린우체통에 접수된 엽서가 지난 3일 발송됐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느린우체통은 땅끝전망대 매표소에서 엽서(500원)를 구입해 사연을 적은 후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또는 1년 후 원하는 주소로 발송해 준다. 우체통은 한반도 모양으로 제작돼 전망대 입구에 설치돼 있다.

이번에 발송된 엽서는 250여통으로, 해남을 찾은 관광객들이 남긴 사연 가득한 엽서가 전국 각지로 보내졌다.

느린우체통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공간으로 마련돼 땅끝전망대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땅끝은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으로 여는 관광지지와 다른 감동이 있는 곳이다”며 “방문 당시의 감상이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다짐 등을 담은 느린편지를 받으면 땅끝 방문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완도, 2020년까지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 18억 4천 500만 원 투입

완도군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등이 발생할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 4천 5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225개 마을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완도군은 245개의 마을 중 권역별 공모 사업을 통해 21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구축됐으며 구축된 마을도 연계해 일체 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1차 년도 사업비 11억 원과 2차 년도에는 7억 4천 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기 구축돼 있는 곳은 전남도 재난문자 방송시스템과도 연계해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재난 마을방송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실시간으로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마을회관에 구축된 옥외 스피커를 통해 소식을 알릴 수 있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무안,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무안읍 무안전통시장에서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무안군청 및 무안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의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

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법 및 겨울철 동파방지방법이 담긴 전단지 배부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가드캠페인을 실시하며 안전생활을 당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달 안전교육은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으로 군민들의 안전문화의식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기사제보 227-0000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24시굿모닝보석불가마사우나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